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주요 GTO 처리물동량, 아시아지역 비중 매우 높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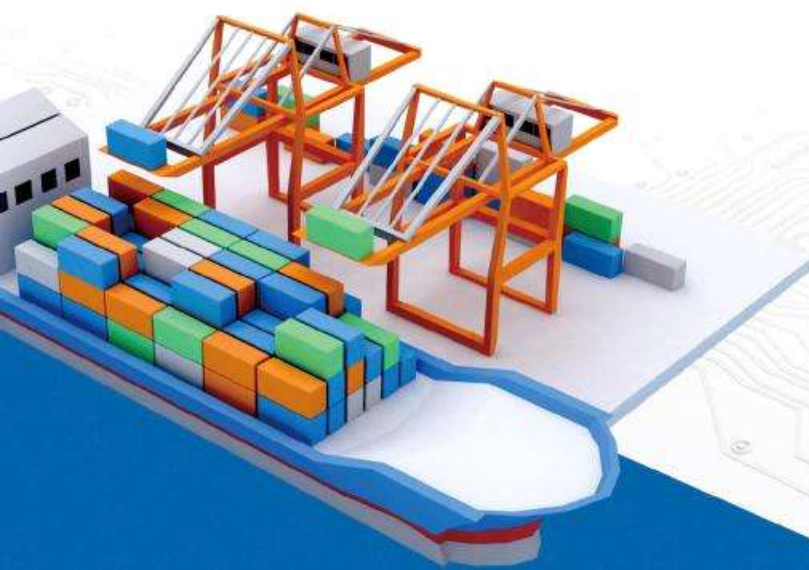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Nippon Express, 인도 물류서비스 강화 위해 FSC에 투자
2. 로테르담, 스마트 해상 물류 강화 위해 블록체인 적극 활용
3. LA/LB항, 무배출 기술 적용해 유해가스 배출 감소 추진

명사 스피치

“중소물류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. 특히 중소기업의 물류서비스 경쟁력은 국내 화주기업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수직적 협업관계에 있는 대형 물류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.”

이상근 삼영물류(주) 대표이사
(2019. 9. 30. / 아웃소싱타임스 인터뷰 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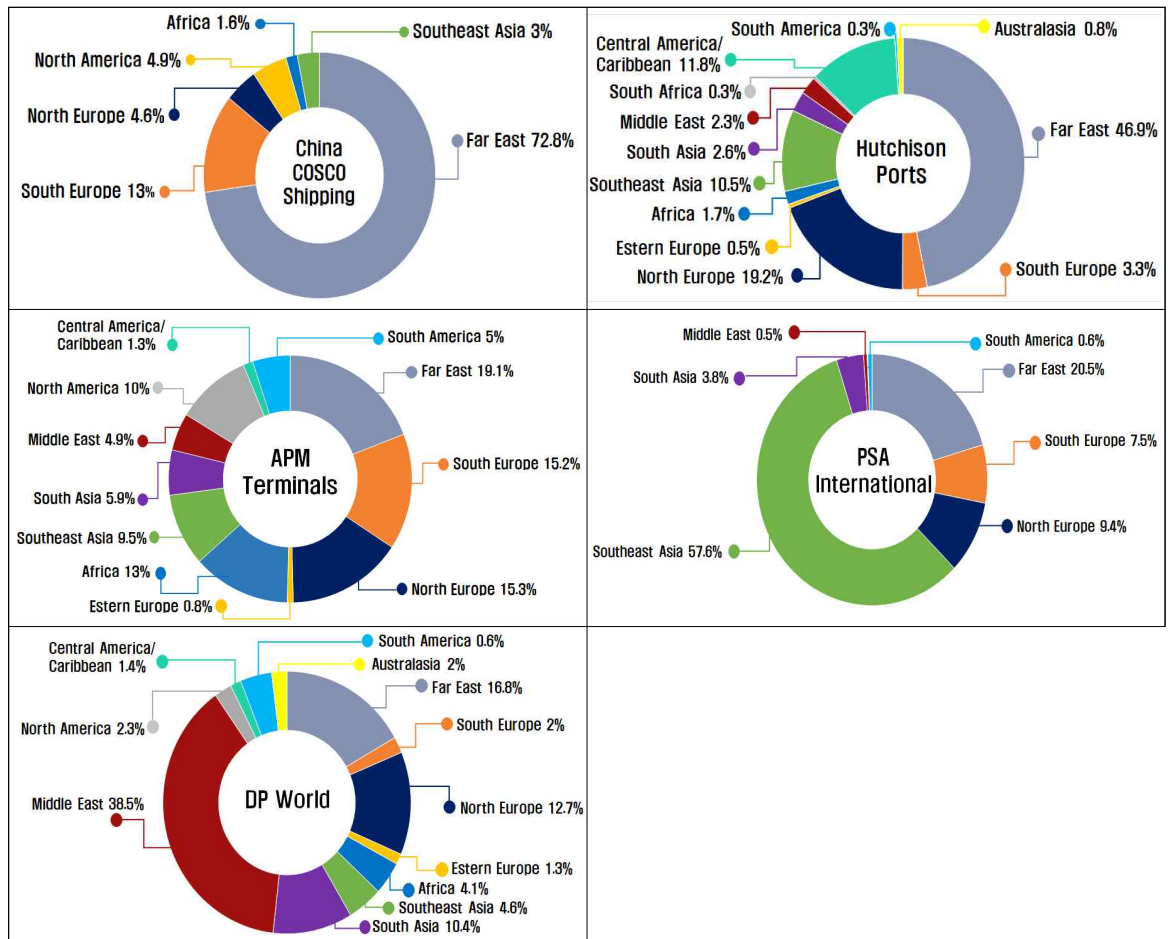
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주요 GTO 처리물동량, 아시아지역 비중 매우 높아

주요 GTO의 지역별 처리물동량 비중 (2017년 기준)



자료 : Drewry Maritime Research,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2018을 바탕으로 KMI 재작성.

- 글로벌 해운컨설팅기업 Drewry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5대 GTO의 지역별 처리물동량 비중은 운영사별로 상이하나 APM Terminals와 DP World를 제외하면 아시아지역 비중이 높음
 - China COSCO Shipping(극동아시아, 72.8%), Hutchison Ports(극동아시아, 46.9%) 및 PSA International(남동아시아, 57.6%)은 자국항만 및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를 바탕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음
 - 반면 APM Terminals와 DP World는 다양한 국가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처리물동량의 편차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

참고자료 : Drewry Maritime Research,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2018, (검색일: 2019.9.25.)

김가현 전문연구원

051-797-4692, ghkim@kmi.re.kr



Nippon Express, 인도 물류서비스 강화 위해 FSC에 투자

- Nippon Express가 남아시아오세아니아 자회사를 통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Future Supply Chain Solutions(FSC)에 투자하기로 했으며, 2020년 1월에 투자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를 위해 Nippon Express는 신주인수계약(Share Subscription Agreement)을 비롯해 FSC와의 주주계약(Shareholder Agreement) 및 FSC 일부 주주와의 주식매입계약(Share Purchase Agreement)의 시행을 승인함
- 인도 최대 소매그룹 Future Group의 자회사인 FSC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, 인도의 메이저 물류기업 중 하나임
 - FSC는 계약물류, 특송, 온도조절물류 등을 포함한 제3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주요 고객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 및 다국적 기업임
- 이번 인수는 Nippon Express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계획의 일환으로, 향후 Nippon Express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물류사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
 - 2018년(회계연도)을 시작으로 Nippon Express는 글로벌 입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올해 2월 발표한 'Nippon Express그룹의 사업계획 2023 - 동적 성장(Nippon Express Group Business Plan 2023 - Dynamic Growth)'에도 '글로벌 입지 강화'가 비전으로 설정되어 있음
 - 현재 인도 물류시장은 도로 네트워크 현대화, 간접세인 GTS(Goods and Service Tax)의 시행에 따른 전통적 공급망의 재구성,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의 소비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
- Nippon Express는 FS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역량을 보강하고 고객에게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도 물류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
 - Nippon Express는 2007년에 처음 인도 시장에 진출했으며, 현재는 인도 항발 국제화물 운송에 주력하고 있으나 성장하는 인도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국내 물류사업을 강화할 계획임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ti-insight.com/> 2019.9.26.

김은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로테르담, 스마트 해상 물류 강화 위해 블록체인 적극 활용

- 로테르담은 전략적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 시도 중
 - 로테르담 항만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해상 물류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자 함
 - Martijn Thijssen 로테르담 항만의 디지털 전략·변화·사업 개발팀장은 해상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은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면서, 로테르담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항만이 되는 것이며, 그 핵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고 언급함
- 로테르담시와 항만공사는 블록체인 기술 구현을 위한 BlockLab 공동 설립
 - 로테르담시와 항만공사는 BlockLab을 공동 설립해 에너지와 물류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·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
 - 블록체인이 에너지 분야의 필연적인 전환에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타진을 위한 BlockchainXEnergy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
 - 또한,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, 물류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향상, 추적 개선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음
- BlockLab은 여러 전문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개발·적용을 시도하고 있음
 - BlockLab은 블록체인 전문 지식,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
 - BlockLab은 ABN AMRO 은행, 삼성 SDS, 로테르담 응용과학대학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
-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오픈 물류 시스템 DELIVER 개발
 - BlockLab은 삼성SDS와 ABN AMRO 은행과 함께 물류와 금융업 등에 사용가능한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인 DELIVER를 개발함
 - Eric-Jan Iding 삼성 SDS의 마케팅 관리자는 BlockLab과 함께 만든 DELIVER는 물류 및 금융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산업플랫폼이라 설명함
 - 또한, DELIVER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정보 교환을 실현함으로써 공급망의 신뢰 및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고, 주문과 선적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portofrotterdam.com/> 2019.9.28.

안승현 전문연구원

051-797-4693, shan@kmi.re.kr

LA/LB항, 무배출 기술 적용해 유해가스 배출 감소 추진

- LA항의 2018년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LA항은 이미 2023년까지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속적으로 무배출 기술을 도입해 더 많은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함
 - LA항은 2017년 업데이트된 LA/LB CAAP(Clean Air Action Plan)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%, 2050년까지 8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본 리포트에 따르면, 디젤로 인한 미세먼지는 77%, SOx(황산화물)는 93%, 그리고 NOx(질소산화물)는 59%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
- LA/LB항은 2006년 CAAP를 통해 2030년까지 하역장비(CHE·Cargo-Handling Equipment), 2035년까지 대형 트럭의 무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이를 위해 상용화 가능한 무배출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, 하역장비, 선박, 트럭, 기관차 등과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 또는 직접 참여하고 있음
 - LA/LB항은 야드트랙터, 탑핸들러, RTGC, 포크리프트 등과 같은 하역장비들의 디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
 - 지난 9월 발표된 2018년 하역장비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, 현재 항만 내에는 3,500대의 하역장비가 있으며, 이 중 70%가 높은 대기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대형 디젤 엔진에 의해 구동되고 있음
 - 트럭의 무배출을 달성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워 LA/LB항은 이를 2035년까지의 목표로 하고 있음
- 최근 선사들은 더 새롭고 크고 깨끗한 선박을 개발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적은 선박 기항 및 배출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자 함
 - LA 전체 오염물질의 30%를 배출하고 있는 선박은 가장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오염원으로, 이를 줄이기 위해 LA항은 항만 내 선박 감속운행, 육상전원공급, 친환경 연료 사용, 신조 및 친환경 선박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략을 추진 중임

■ 참고자료 : JOC, Technology driving emissions reduction at LA-LB port, 2019.9.24.

강무홍 전문연구원

051-797-4684, mkang@kmi.re.kr

